

공존과 일탈의 경계에 선 공주들의 타자의식 고찰

- <도앵행>과 <취미삼선록>에 등장하는 공주들의 시대 생활을 중심으로

구선정*

— <차 례> —

1. 황실에서 가문으로의 이동, 타자로서의 공주들
2. 시대 공간에서의 생존방식
 - 1) <도앵행>의 영평공주 : 새로운 질서 구축과 공존
 - 2) <취미삼선록>의 공주들 : 일탈의 경계에서 방황
3. 공존과 일탈의 경계에 선 공주들의 타자의식 -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이 논문은 황실을 떠나 일반가문에 시집 온 <도앵행>과 <취미삼선록>의 공주들을 통해 시대 공간에서 느끼는 공주들의 타자의식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공주들이 타자로 존재함은 두 집단의 성, 계급,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공주들은 새로운 가문에 시집 온 타자이면서도 일반 여성들과 다르게 주체, 즉 시대를 압도하는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대상이다.

공주들의 생존 방식은 시집가기 전- 혼사 - 시대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시집가기 전 영평은 영락한 가세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낮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율체들을 시대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주며, 자매들의 관계도 원만하게 하는 등 준비된 며느리로서의 위용을 보여준다. 혼사과정에서 <도앵행>의 시아버지 주당은 영평을 자신들의 집단의식과 질서를 교란시키는 타자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 심리를 숨기기 위해 공주를 배척하면서 내부를 결속시킨다. <취미삼선록>에서 남편 양송은 무양을 자신들의 신분 상승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인식하여 환대한다. 그러나 황실의 위상에 압도당한 양송의 심리 이면에는 황

* 경희대

실에 대한 열등감 또한 자리 잡고 있다. <도앵행>에서 영평은 시택을 ‘허상뿐인 명분에 사로잡힌 곳’으로, <취미삼선록>에서 무양은 시택을 ‘무도하고 패악이 자행되는 곳’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질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즉, 낮은 세계라 하더라도 친숙하고 익숙한 정도에 따라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도앵행>의 영평은 이질성에 대한 관대한 시선으로 시택을 이해하고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으며 가문의 일원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취미삼선록>의 공주들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택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채 일탈의 경계에 서며 영원한 타자로 남는다. 이렇게 시택보다 상위에 있는 공주들이 어떻게 시택에 적응하여 주체화 혹은 일탈하여 소외되고 주변화 되는지를 공주들의 삶을 그린 <도앵행>과 <취미삼선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도앵행, 취미삼선록, 타자, 타자의식, 차이, 공주, 부마, 시택, 황실, 가문, 신분, 지위, 혼사, 공존, 정착, 일탈

1. 황실에서 가문으로의 이동, 타자로서의 공주들

본고에서는 황실을 떠나 일반가문에 시집 온 공주들의 생존방식을 통해서 타자의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한국 전통 사회에서 결혼은 “시집가고”, “장가드는”일로, 본래부터 이주(移住)를 전제로 한다.¹⁾ 특히 여성은 조선 후기 친영제의 실시로, 결혼과 동시에 친정을 떠나 시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시택에서 타자로 자리 매김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한 것을 선호하고 그것에 의해 안도감을 느낀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여기서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한 것은 바로 한 사회나 집단이 지닌 ‘집합의식’과 긴밀히 연결되

1) 김대수, 「결혼 이주 여성의 주체적 삶을 위한 설화 전승의 의의」, 『한국고전연구』25집, 2012, 38면.

는데²⁾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다. 특히 순수한 부계 혈통으로 이루어진 조선사회의 일반기문은 자기 집단에 대한 우월 의식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것에 대해 강한 배타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시집 온 여성을 타자로 인식하고 배제하였다. 결혼의 목적은 시부모를 봉양하고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것을 잘 수행한 여성은 기문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지만, 그렇지 못한 여성은 평화로운 세계의 교란자가 되어 ‘부도덕’한 것으로 낙인찍힌다. 이는 리처드 커니가 “‘낮설고’, 그래서 ‘두려움’ 이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타자들로서, 이상한 괴물이자 낮은 이방인이고, 평화로운 세계의 교란자이며 때때로 이름조차 부여되지 않은 변종들이다”고 말한 것과 부합된다.³⁾

계다가 최고의 문벌과 권력을 지닌 공주의 입성은 시대 사람들에게 불안과 위기의식을 배가시킨다. 이들은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공주들에게는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겨질까 봐 초조해 한다.⁴⁾ <소현성록>에서 황실의 지위와 특권을 내세워 소운성 집안에 들어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파멸하는 명현공주만 보더라도 공주에 대한 시대의 불안한 심리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

황실 밖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는 공주들에게도 시대는 ‘낮설음’과 ‘두려움’ 그 자체이다. 시집가기 전에는 황제와 황후뿐만 아니라 황실 사람들의 비호를 받으며 부러울 것 없이 생활하지만, 시집간 후에는 더 이

2) 김광기,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이방인』, 『사회이론』봄·여름, 2008, 290-292면 참조.

3) 리처드 커니(이지연 역), 『이방인, 신, 괴물』, 2004, 12-44면 참조.

4) 김광기는 “한 사회에서 신주 단지처럼 중요시 여겨지는 것들이 ‘이방인’에겐 별 것 아닌 것으로 희석되고 무화(無化)되고 탈신비화 된다. 즉 그것들은 ‘이방인’에 의해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 하였다.

김광기, 앞의 논문, 297면.

상의 특별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들도 다른 여성들과 똑같이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의 직분을 다해야만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던 황실과 달리 시댁의 질서에 모든 것을 맞추어 살아야 하는 공주들의 삶은 일반여성들보다 더 큰 혼란과 좌절을 가져온다.⁵⁾

고전소설 속에서 여성은 가해자 혹은 희생자로 나누어 대립적인 구도로 이야기된다. 이는 그만큼 여성이 가부장제 질서에서 소외된 타자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공주들만큼은 그래도 일반 가문의 사람들보다 신분이나 명예 등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주의 입성은 시댁에 두려움과 동시에 매혹을 느끼게 해준다.⁶⁾ 즉 공주의 권력으로 가문의 입지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매혹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⁷⁾ 가문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⁸⁾ 공주의 시댁 입성은 타자가 상위 계급과 문화에서 왔을 때 겪게 되는 의식과 타자에 대한 주체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도앵행>과 <취미삼선록>은 모두 장편본 <옥환기봉>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다.⁹⁾ <도앵행>은 장편본 <옥

- 5) <구운몽>의 난양공주나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 <쌍천기봉>의 계양공주가 양보와 조화를 통해 가문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가문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 6) 실제로 조선시대에 왕실과 혼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대부 가문에게는 봉작(封爵)의 기회가 주어져 가문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신장시켜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향유하는 데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 주었다. 이준구, 『조선 후기 신분지역변동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121-122면 참조.
- 7) <구운몽>에서 양소유는 난양공주를 만나 화합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한다.
- 8) <소현성록>의 명현공주는 소씨 가문에 들어가 그 가문의 풍습과 예의를 지키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파멸에 이른다.
- 9) <옥환기봉>은 장편본(30권 15책)과 단편본(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장편본(규장각본)이 유일하게 낙질이 없이 완벽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도앵행>·<한

환기봉>에 등장하는 광무제의 누이인 영평공주를 주인공으로 한다. 장편본 <옥환기봉>에서는 영평공주가 주당의 아들인 주원성과 혼인했다고 설정하고 있는데 <도앵행>에서도 이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¹⁰⁾ 역사적으로 영평의 남편이 광무제를 도와 대업을 이룩한 이통(李通)이란 인물이었다는 점을 미루어본다면¹¹⁾ 역사보다는 장편본 <옥환기봉>을 토대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취미삼선록>은 장편본 <옥환기봉>에서 나오는 공주들과 부마들의 이야기를 계승하고 확장한다. ‘나의 주옥같은 삼녀 안타깝게도 방탕한 부마를 만나 인생을 마치다.’, ‘나의 삼녀 완전히 옥경 삼선이라’는 대목에 주목하여 ‘취미궁’에 거하는 ‘세 공주(무양·관도·여읍)’의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품 말미의 ‘날야의 꿈’에서 <도앵행>의 인물인 정부인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도앵행>도 참조하여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도앵행>은 광무제의 누이인 영평공주가 어떻게 주씨가문에 들어가 정착하는지를 보여준다.¹²⁾ <취미삼선록>에서도 마찬가지로 광무제의 딸

조삼성기봉>·<취미삼선록>의 모본 기능도 하고 있다. 이들 작품과의 연관성은 이승복과 임치균에 의하여 밝혀졌다. 이승복, 「<한조삼성기봉>의 구조와 성격-전편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1. 204-225면.; _____, 「인물 형상을 통해 본 <도앵행>의 의미-<옥환기봉>과 관련하여」,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2002. 373-399면.; 임치균, 「<취미삼선록> 연구-<옥환기봉>·<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006. 351-378면.

10) 이승복은 역사적으로는 영평의 남편이 이통인데 <옥환기봉>에서는 이통 대신 주당이 시아버지로 설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도앵행> 이를 반영하여 주당의 아들 주원성과 혼인하였다고 한다. 이승복, 앞의 논문, 2002, 373-399면.

11) 「更始使通持節還鎮荊州 通因取光武女弟伯姬 是爲寧平公主」 『後漢書』권15, 『李王鄧來列傳』, 범엽, 『後漢書』, 중화서국, 1994.

12) <도앵행>의 이본은 8종인데 연세대본 2권 2책이 서사에 있어 완성성과 정제함을 갖추고 있어 이 본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최윤희, 「<도앵행>의 문헌학적 연구」, 『우

인 무양공주의 혼인과 시대에서의 삶을 그린다. 더 나아가 곽후소생의 공주인 무양·관도·여읍의 ‘취미궁’집거 이야기도 첨가하고 있다.¹³⁾ 장편본 <옥환기봉>에서 영평공주는 엄정하고 관대한 성품으로 황실 갈등을 증재하고 황실 치가(治家)에 주도적 역할을 하던 인물이다. 그러나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서의 삶이 그려져 있지 않다. 무양·관도·여읍공주도 시대 생활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지 않다.¹⁴⁾ 이렇게 본다면, <도앵행>과 <취미삼선록>은 장편본 <옥환기봉>에서 인물을 가져왔지만, 이들의 시대 생활로 이야기를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편본 <옥환기봉>과 이를 토대로 창작된 <한조삼성기봉>에서도 공주들은 등장한다. 그러나 공주들이 광무제와 곽후·음후의 자녀로서의 역할에만 치중할 뿐 시대에서의 행적은 자세하게 그려져 있지 않다. 본 논의가 ‘공주들의 시대 생활’을 조명하고 있는 만큼, 공주들이 주변인물에 그치고 있는 <옥환기봉>과 <한조삼성기봉>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도앵행>¹⁵⁾과 <취미삼선록>¹⁶⁾의 연구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리어문연구』29, 우리어문학회, 2007 참조.

- 13) <취미삼선록>의 이본은 5종이다. 이 이본들은 거의 내용이 동일하다. 소인호, 『<취미삼선록> 이본 연구』, 『우리어문연구』33, 우리어문학회, 2009 참조. 본고에서는 그 중 가장 완벽한 형태의 이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본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 14) 장편본 <옥환기봉>에는 부마들의 성품이 방탕하여 공주들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과 여읍이 음풍(부마)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에피소드 정도가 그려져 있다.
- 15) <도앵행>은 이수봉에 의해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되었다. (이수봉, 『<도앵행>전 연구』, 『개신어문연구』11, 개신어문연구회, 1994) 이후 이승복은 <옥환기봉>과의 비교를 통해 <도앵행>과의 연관성을 밝혀내었고 (이승복, 『인물 형상을 통해 본 <도앵행>의 의미 -<옥환기봉>과 관련하여』,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2002) 한길연은 <도앵행>에 나타나는 시비들의 활약에 주목하여 이들이 능동적인 보조인물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살폈다. (한길연, 『<도앵행>의 재치있는 시비군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최윤희는 <도앵행>의 이본을 검토하여 연세대본을 선본(善本)으로 확정하고 (최윤희, 『<도앵행>의 문헌학적 연구』, 『우리어문연구』29, 우리어문학회, 2007) 이어 <도앵행>의 갈등의 실체에 주목하여 갈등의 원인이 ‘신위군(臣爲君)

할 수 있다. 그러나 장편본 <옥환기봉> 인물 중에서 유독 공주에 주목하여 그들의 삶을 확장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이 어떠한 곳에서 왔으며,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들의 것과 무엇이 틀리며, 타자인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공간에서 생존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작가가 공주를 주변인물이 아닌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¹⁷⁾

과 ‘사이군(事爲君)에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었을 때 영평과 정위주가 주씨가문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최윤희, 『<도애행>의 갈등 양상과 그 구성 방식』, 『어문논집』56, 민족어문학회, 2007.)

- 16) <취미삼선록>연구는 소인호에 의해 시작되었다. (소인호, 『<취미삼선록>연구』, 『국어국문학』113, 국어국문학회, 1995.) 이어 이승복은 <옥환기봉>과 <취미삼선록>의 연관성을 밝혀내었고(이승복,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 『국어국문학』, 2001.), 구선정은 이 작품이 남녀의 부부 갈등과 이념의 논쟁을 통해서 당시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유교적인 윤리관이 균열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식이 강화되어 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구선정, 『<취미삼선록>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4.) 이어 임치균은 <취미삼선록>과 <한조삼성기봉>과의 연관성을 밝혀내었고(임치균, 『<취미삼선록>연구-<옥환기봉>·<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006.) 구선정은 <구운몽>과 <취미삼선록>의 ‘취미궁’을 비교하여 각각 은퇴(隱退)와 보신처(保身處)로서 기능함을 얘기하였다. (구선정, 『<중남산 취미궁>의 체험 양상과 그 의미-<구운몽>과 <취미삼선록>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문논집』24·2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7.) 박은정은 <옥환기봉>연작 중에 <취미삼선록>에 대하여 모계 중심의 연대기와 여성 의식의 진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여성 중심의 가족 질서를 통해서 가족담론과 여성 의식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았다.(박은정, 『<옥환기봉>연작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08.) 한길연은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의 탈속적 자기공간 추구에 대해 비교 연구를 했다.(한길연,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의 여주인공의 탈속적 자기공간 추구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박은정은 공간 연구를 통해 ‘취미궁’은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을 완전히 벗어난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외부 공간의 전횡적 권력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의지를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하였다.(박은정,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공간의 기능과 의미』, 『한민족어문학』60, 한민족문학회, 2012.)
- 17) ‘공주혼’은 그동안 왕권과 신권의 대립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서대석, 『하진양문록』,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 학위 논문, 1994. 심재숙, 『고전소설에 나타난 공주혼 삽화의 양상과 그 의

2. 시대 공간에서의 생존방식

서로의 집단이 친숙하거나 가깝다면 이질적인 요소는 쉽게 융합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로의 간극이 너무 커서 쉽게 합쳐질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럴 때에는 심한 갈등과 위기가 조성되는데, 특히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타자가 느끼는 ‘낯설고 두렵다’는 감정은 이전 공간과 현 공간의 ‘차이’로 인해 심각한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혼인을 전후(前後)로 하여 시대에서 공주들이 그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지를 생존방식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1) <도앵행>의 영평공주 : 새로운 질서 구축과 공존

① 시집가기 전

유백희(영평공주)는 오라비 광무제의 황제 즉위를 전후로 하여 일반가정과 황실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 인물이다. 신분도 마찬가지로 일반 여성에서 공주로 격상되면서 가난과 부귀를 모두 경험하는데, 그녀의 공정하면서도 유연한 성격은 바로 이 같은 삶의 폭넓은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 『한국 가문소설 연구 논총』3, 경인문화사, 1990.) 이어 이수희는 공주혼과 결합하는 다양한 모티프들을 찾아 분석했다. 그래서 <구운몽>에서는 주인공의 입지를 공고히 하며 가문 창달의 단초로 기능하는 한편, <소현성록>에서는 왕권과 신권의 대립과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예’라는 유교적 윤리 규범을 <유씨삼대록>에서는 여성의 수동성과 유순성의 속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이수희,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한국고전연구』19, 2009.) 최혜리는 <구운몽>·<소현성록>·<유씨삼대록> 등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공주들을 ‘공주형 인물’로 설정하여 공주형 인물의 성격과 기능을 분석하였다.(최혜리, 『고전장편소설의 공주형 인물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10.)

유백희는 “뱃혀 스텍이 구비호야 진짓 뇨쥬숙네니 복덕과 지뫼 겸전”(1권 2면)하여,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물이다. 그녀는 밤에는 『예기』와 『사서』를 읽고 낮에는 방직하며 학문과 여공을 동시에 힘쓴다. 뿐만 아니라, 오빠 유백승과 유중이 천하를 도모할 뜻을 지녀 “두어 빈직을 스키여 영웅을 결납호고 산업을 도라보지 아냐 종적이 표탕(1권 2면)”하고, 유수(광무제)마저 숙부의 양자가 되어 집안을 떠나자, 홀로 편친을 봉양하면서 살림을 꾸려 나간다. 이렇게 백희는 오빠들마저도 회피하고 떠난 집안에서 실질적인 가장이 된다.

우선 백희는 올케들을 격려하여 시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오빠 유백승의 부인인 이씨는 호부한 집에서 태어나 성격이 교오(驕傲)하고 빈친을 감심하지 못하여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들과도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한다. 이때 백희만은 이씨를 공경으로 대하여 교오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한다. 또한 오빠 유중의 처 최씨가 질든하여 가족들이 개탄하고 무시하자, 모친에게 최씨를 이해하고 사랑할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유수의 처 곽씨와는 골육과 같은 정을 나누며 빈한한 집안을 함께 꾸려 나간다. 올케 이씨가 “중시를 보전키 흐미 다 공주의 힘이라”(1권 4면)고 칭찬하는 데에서 보듯이, 백희는 올케들이 유씨가문의 일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백희는 자매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중재한다. 큰 언니 회양이 백승의 빈객을 엿보아 남자들을 폄론하고 병서를 읽어 고급 성패를 일권자 둘째 언니 원이 회양의 방탕함을 일컬으며 힐난한다. 이에 백희가 회양에게는 웃으며 원의 성품이 강렬할 뿐이지 골육자매의 허물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위로하고, 원에게는 회양이 맏이니 공경해야 한다고 타이르면서 두 사람을 화해시킨다.

세 번째로 백희는 가세가 기울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빠들이 모두 집을

돌보지 않자, 유수에게 다시 돌아와 편친을 봉양하고 가사에 힘쓸 것을 권유한다. 이에 광무제가 숙부네 집에서 돌아와 농업에 힘쓰며 가문의 부흥을 도모한다.

이렇게 백희는 영락한 가세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낮은 시가에 적응하지 못하는 올케들을 유씨가문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주고, 자매들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주면서 치가(治家)에 앞장선다. 그리하여 유년 시절의 백희는 딸로서 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역할 또한 다하면서 ‘준비된 며느리’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된다.

유수가 황제에 즉위하자 백희도 일반 여성에서 공주로 신분이 격상된다. 그리하여 공간도 일반 가문에서 황실로 이동된다. 그러나 주목할 바는 혼인 전 유씨가문에서의 생활은 비교적 자세하게 그려지는 데 반해 황실에서의 생활은 거의 서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편본 <옥환기봉>에서 유씨가문에서의 생활보다 황실에서의 생활을 더 자세히 그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장편본 <옥환기봉>에서 영평은 편벽된 애정으로 인하여 곽후를 냉대하는 광무제의 무신(無信)한 행동을 비판하며¹⁸⁾ 광무제로 인하여 사이가 멀어진 곽후와 음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도록 애쓴다.¹⁹⁾ 그리고 황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곽후를 도와주고, 음후를 악인들로부터 보호하고, 궁중 정사를 광무제 대신 다스리기도 한다.

<도앵행>에서는 ‘일반가정’에서의 백희의 활약만 서술한다. 이는 공주라는 신분보다는 한 가정의 딸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18) 광무제가 곽후와 음후를 둘 다 귀인으로 정하고 곤위(壺位)를 정하는 데에 뜻을 들이지, 위치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으니 빨리 곽씨를 황후로 정하라고 재촉한다. 광무제는 이 충고를 받아들여 곽후를 황후로 삼는다.

19) 곽후에게 진상품이 생기면 음후에게 보낼 것을 권하기도 하고, 음후를 투기하는 곽후의 잘못을 질책하기도 하며, 곽후의 투기를 부추기는 윤보모와 왕첩여를 꾸짖어 물리치기도 하는 등 곽후가 황후로서 지켜야 할 본분과 도리를 깨우치도록 했다.

보여준다. 영평은 유씨가문에서 실질적인 가장이었다. 이러한 설정은 그녀가 시택에 가더라도 그들이 만든 질서 속에서 일탈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그녀의 공정함과 관대한 성품은 앞으로 시택의 사람들을 압도할 것임을 예견하게 한다.

② 혼사

주당은 아들 주원성과 함께 천하를 주유하다가 영평의 현숙함을 듣고 유씨가문에 직접 찾아가 청혼한다. 그러나 유수가 기병하여 집안에 경황이 없자 주당은 혼사를 더 진행시키지 못하고 아들과 함께 고향 태원으로 돌아간다. 이 때문에 공주는 3년이 지나도록 ‘현구고지례’(見舅姑之禮)를 행하지 못한다.²⁰⁾ 그러다가 광무제가 황제로 즉위한 2년 후에야 비로소 조카 진왕과 예부상서·정자사·유태수 등을 데리고 ‘현구고지례’를 행하려 시택이 있는 태원으로 향한다.

츠시 공쥬 귀근호는 선문이 티원의 이르니, 처시 눈섭을 찡긋여 그 번요호
물 깃거아니호고 막시 황겁호야 어린 아희 뇌성드름갓더니, 존시 태슈 갖가
이 막츠를 잡고 공쥬부를 지으니, 처시 십분 불평호야 지습 스양호디, 틱셔
를 잡아 턱즈 명조를 봉행호는비니 엇지 막으리오. 공쥬와 부매 고로이 간호
여 비록 반감호여시나 천여간 고루화각이 운니의 다하 쥬함 옥난이 일식의
빈이니 처스와 막시 어이 성년의 본비리오. 그러나 처스는 지고 고산궂트여
인간 부귀의 동홀배 아니나, 막시는 뽀인가 상신가 놀나고 황황호여 분쥬호
며 구경호더니, (1권 36면~37면)

공주와 일행이 시택에 이르자, 시어머니 막씨는 그 화려함과 장대함에

20)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머느리는 시부모를 뵈는다.(明日夙興, 婦見於舅姑.)”, 『주자 가례』3 「昏禮」.

놀라 구경하기 바쁘나, 주당은 의외로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번요함을 내세워 행차하는 공주 일행에 불쾌함마저 느낀다. 주당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현구고지례’를 행하러 온 사람이 ‘유백희’가 아니라 ‘영평공주’라는 데에 있다. 백희의 신분이 공주로 격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무제의 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시대에 입성하기 전부터 백희는 주당에게 거부당한다.

건무 이년의 태원의 도라가니, 원니 쥬쳐사는 당세의 디은이라. 늙흔 지조와 엇지 못홀 고절이 잇고, 경술과 문장이 광박햐야 경늬디스를 두어시되 성품이 향고호고 준넬햐야 만승지쥬보기를 초기갓치 호고 왕공부귀를 분토갓치 녀이니 고금을 녀슈햐야 그 향모햐난비 소부 허유 빅이숙제오, 그 더브러 벗햐는 배 업즈름 왕경 왕냥 등이니 그 지기 송빅갓고 고운 야학갓툰 풍되 탈속 비범햐야 진인의 쥬어는 괴상이 스스로 상슨샤호를 우이 녀이니 혹 소선을 타고 강호의 놀며 혹 건녀를 모라 텃햐강산을 츠즈니 종적이 표탕햐야 이르지 아년곳이 업더라. (1권 16면~18면)

주당은 세상과 절연한 채 지조를 지키며 사는 은자로, 만승지쥬보기도 초개같이 여기고 왕공부귀도 분토같이 여기는 사람이다. 그가 사모하는 허유(許由)·소부(巢父)·백이숙제(伯夷叔齊) 등도 모두 지조를 지키기 위해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은거한 사람들이다. 작품 말미에 “성태명왕이 신즈슴지 못햐는 선비 잇시니 빅이 숙제 듀속을 먹지 아님과 터원 듀당이 녹을 밧지 아니미 각각 그 뜻이라. (2권 100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의 준열한 성품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황실 소속의 사람이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문왕이 덕이 브독햐시미 아니오 쥬왕이 스오납지 아니미 아니라 무왕이

도민별죄하시니 그 공업이 적으미 아니오 그 덕이 성인이 안니시미 아니라
 빅이숙제 머리를 두드려 간하고 슈양산의 숨어 신스티 아니든 신즈로써 그
 임자를 치물 그릇 녀이미라. 니 이제 왕상의 발난발정흐야 등홍태평흐신 공
더글 모르미 아니오 경시의 혼암무도흐물 올타흐미 아니로디 군신의 도는
맞춤니 맞고이니 빅승의 뜻만 갖지 못한지라 고죽군이 이제 잇게 되면 또한
 노모라지 아니라(1권 46~47면)

주당은 신하가 임금을 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아무리 경시
 제가 혼암하고 무도하다 하더라도 그를 내치고 천자의 자리에 즉위한 것
 은 용납할 수 없는 불의지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무제의 동생인
 영평을 가문에 일원으로 받아들이 수 없다. 만약 받아들이한다면 그동안 목
 숨같이 여기던 신념이 흔들리거나 위협당할 수 있다. 주당은 영평을 자신
 들의 집합의식을 위협하는 침입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엄엄하고 숨숨한디 진주발과 금슈 주취 현난흐여 바로 보지 못헐너
 라. 별부의 이를시 처시 크게 짓거 아냐 왈, 나는 이 산야 필부라. 엇지 이러
투스 존귀한 녀즈를 어더 식부항의 두어 더런 변화 부귀를 당하리오. 심심불낙
 흐야 문을 닳고 초당의 기죄잇서 느지 아니하니.....(1권 38면)

귀취 부덕을 숨가고 만세 황애 네도를 밝히고저흐샤 이의 니르니, 노뷔
 또한 스양치 못흐여 맞거니와 황가 턴금옥엽이 엇지 오래 뿌집고 소날을 감심
하리오. 왕은 수이 다려 도라가 노부의 천누한 마음을 편케하라. (1권1 44면)

영평이 황실 일행을 데리고 별부에 이르자, 처사는 자신과 공주를 ‘산
 야 필부’와 ‘존귀한 여자’로 명확히 구분하면서 자신의 집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남편인 주원성 또한 공주가 귀근하는데 배행하기를 피한다.

같이 호행한 조카 진왕이 공주의 부덕함과 황제의 예도를 칭송하며 공주를 맞이하기를 간청하나, 누추한 집에서 황가의 여자가 거할 수 없다며 공주를 돌려보내려 한다. 이렇게 주당은 자신과 영평의 ‘차이’를 강조한다. 주목할 점은 이 ‘차이’를 통해 영평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단에서 배제하려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공쥬 이날 네복을 간략히 흐고 위의를 초초히 흐여 봉년을 물니치고 자근 교즈를 타고 보모 양 상공과 두어 빵 시녀를 다려 쳐스의 곳의 나아갈십,공쥬 비록 단장을 초초히 흐얏시나 한벌 장복은 폐치 못흐니 왕희의 존 흐미 그 품복이 즈연 괴이흐니..... 아름다운 광치 아연이 일월의 상화흐며 달근 향풍이 인은흐여 그 즈질의 합도흐니 이 만일 요지왕피 고향흐미 아니면 은하직네 덕흐흐미라. 그 광휘와 복식의 괴이흐미 막시의 녁술 놀래디 아니리오. 흐물며 옥용화피 팀어낙안지용과 폐월수화지피 이셔 암벽이 조요 흐디 삼촌금년의 진쥬 무우리를 신고 초요 봉익의 휘드러 폐빅지네를 흥하니, 그 식티용광이 당덕의 독보흐고 만고의 무빵흐니 인간과 천상의 다시 업산디라. 쳐시의 괴제흐 성정으로도 사랑흐를 춤지 못흐고 천성의 귀흐미 있는지라. 공경흐며 네를 바드니 엇지 부귀의 동흐미리오. 그 천성의 숙노함과 즈품의 아랍드오미 군즈의 뜻을 동흐니 쳐스의 구든 마안으로도 동흐미 이시니 그 당세의 숙넌줄 알니러라. 막시 이썸 과망 황홀흐여 심혼이 니테흐야 능히 위의 체면을 출히지 못흐더라. (1권 51~53면)

황실 일행인 정자사가 무왕은 주를 쳤지만 광무제는 경시제를 죽이지 않았다면 주당의 생각이 틀렸다고 설득하지만²¹⁾ 주당은 경시제가 주왕보다 덜 포악하다는 것을 예로 들어 광무제가 경시제를 친 것은 그릇된

21) “정즈시 향전흐여 왈, 무왕은 쥬를 쳤거니와 황상은 경시를 치신일은 업스니이다.”(1권 46면)

행동이라고 주장한다.²²⁾ 이렇게 황실 일행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절대 신념을 바꾸지 않던 주당이었지만, 영평이 검소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나자 그녀의 자품에 감동하여 결국 며느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주당은 화려한 별부를 세우고 많은 일행을 거느리고 태원으로 귀근한 영평이 못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혼구의 화려함과 수많은 일행은 바로 광무제의 권세와 위엄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주가 예복을 간략하게 하고 작은 교자와 몇 명의 상궁만 데리고 검소하게 나타나자 확고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검소한 단장에 흠족하기도 했지만, 오직 장복한 별만으로도 왕희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품어내는 그녀의 모습에 감탄한 것이다. 그러나 주당이 공주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자신의 신념까지 바꾼 것은 아니었다. 부귀함 때문이 아니라 공주의 천성과 아름다움 자품 때문에 마음이 동했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공주는 주씨가문에 입성한다. 공주는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주당의 며느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는 그녀가 낯선 공간에 스스로를 맞춘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신이 거하던 황실과 새로 입성한 시댁의 ‘차이’를 좁혔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도앵행>은 주원성과 영평의 혼사과정을 통해 시댁이 황실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서로의 집단을 맞이하는 태도에서부터 알 수 있다. 주당은 공주와 황실 일행을 배척하지만, 광무제는 황실을 방문한 주원성을 환영한다. 사위인 주원성 또한 황실의 입장에서 ‘타자’이다. 그러나 광무제는 굳은 절개를 가진 주당의 아들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그

22) “쳐스 왈, 경시의 혼암호미 주의 포학만 갖지 못하고 무왕의 별주가 황상의 합친한 뇌부 산주와 다르니라.”(1권 46면)

를 환대한다. 부마를 보고 “풍신괴덕 더욱 턱탕하고 문실이 빈빈하니 아
름답고 두긋기물 이기지(1권 29면)” 못한다며 감탄하고, 또한 학문을 문답
하는데 일언도 정사에 어긋나는 것이 없자, “냥혜왕이 밍즈를 만난 닷(1
권 30면)” 하다며 칭송한다. 그리하여 “관니후 시종을 제슈”하려 하는데
태후가 “티원 슈당의 이지 부마되미 임의 그 지취를 일허 한 불형으로 알
거늘(1권 34면)” 관직을 제수하면 “부마의 자취도 어더보지 못하고 녕평
이 궁극에 폐하리니(1권 34면)”라 하며 말린다. 이렇게 벼슬을 내리는 것
까지 시택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한다. 그리하
여 황실과 시택의 ‘차이’를 극복할 의무가 영평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당은 자신과 공주를 ‘산야 필부’와 ‘존귀한 여자’로 철저하게
구분하여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벽은 공주가 자신
의 특권을 버리고 주당에게 다가갔을 때 사라진다. 즉, 자신을 시택의 눈
높이에 맞추어 변화시켰을 때에야 가문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었던 것
이다. 혼인 다음날 시아버지에게 인사하는 ‘현구고지례’는 바로 며느리,
즉 타자에 대한 자격 심사의 장이면서 통과의례인 것이다.

③ 시택에서의 생활

<도앵행>의 작가가 장편본 <옥환기봉>의 인물들 중에서 유독 영평공
주를 주목한 이유는 그녀가 황실의 대소사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인물이
였다는데 있다. 그래서 작가는 주원성과 정위주의 혼사를 둘러싼 문제를
영평이 중재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공주의 눈에 비친 시택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일까?
시택에 입성한 후 공주는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을 영위해나간다. 황실뿐
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삶도 경험했기 때문에 주로 황실에서만 생활
했던 공주에 비하면 그 낯설음의 강도가 크지 않아서 쉽게 적응할 수가

있었다. 여성은 시집을 가면 출가외인이 되어 행동반경에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공주는 황실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 구속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웠다. 그래서 영평은 일반 여성과는 다르게 황실과 시댁을 자유롭게 왕래한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본궁에서 배회하던 중 한 궁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 궁녀를 통해서 남편 주원성을 위해 수절하고 있는 정위주라는 여인에 대해 알게 된다. 주당과 주원성이 남둔 땅에 가 집을 비웠을 때, 부귀한 집의 정원이란 사람이 자신의 딸 정위주와 주원성의 혼인을 청하자 부인 막씨가 주당이 없이 혼사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미 주당이 남둔땅에서 공주와 아들을 혼인시키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주당은 이 사실을 알고는 정원에게 주었던 빙물을 도로 찾아오게 함으로써 혼인을 무산시킨다. 그러나 정위주는 단지 빙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구혼을 물리치고 ‘도앵행 앵도원 정열당’이라는 곳을 만들어 외인과의 접촉을 끊은 채, 그곳에서 홀로 수절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정위주의 비복인 장란이 궁녀가 된 뒤에 그 사연을 부체에 그려 공주가 보기만을 간절히 기다린 것이다. 장란이 “귀쥬 놉픈 덕헝이 계셔 황그의 귀함과 부녀의 투정을 드바리시고 덩소저의 절열과 외로오를 궁턱히 녀기시고 일뵈 실고하믈 어엿비 너이스 처스의 고집을 도로혀 건져 니시면 이는 풍화성시오”(1권 11면)라고 하는 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당의 마음을 바꿀 인물은 오로지 공주밖에 없다.

정위주의 존재를 알게 된 공주는 주당이 허울뿐인 명분에 사로잡혀 정위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 주당이 정위주를 거부하는 데에는 공주의 존재보다는 정위주의 아버지인 정원이 한때 왕망의 신하였다는 것에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주는 궁녀 가씨와 장란을 보내어 정위주를 데려오게 한다. 정위주는 이 사실을 알자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버린다. 정위주도 주당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시택으로 가려 하지 않는다. 결국 가씨와 장란을 비롯한 정위주의 비복들이 높은 학식을 바탕으로 주당과 설전하여 주당의 마음을 설득시킨다. 그리하여 정위주가 주씨 가문에 입성한다.

주당의 마음을 설복시킨 결정적 계기는 물론 궁인 가씨와 정위주의 시비들이었지만,²³⁾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공주였다. 공주는 장란이 그린 부채만 보고도 정위주의 일을 눈에 본 듯이 그려내고, 정위주가 거처를 옮겨 숨을 것을 미리 알고 시비들에게 지시하여 정위주를 찾아내기도 한다. 그리고 주당에게 찾아가 정위주의 존재를 알리며 며느리로 받아들일 것을 재삼 간청하기도 한다. 공주가 고집스런 주당의 마음을 차차 흔들리게 하고 시비들이 결정적으로 주당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다. 공주와 시비들의 시각에서는 주당의 신념이 현실의식에서 벗어나는 허상에 불과하다. 이들이 독선적인 주당을 설복시킨 것은, 멀리서 온 타자가 주체의 의식까지 변모하게 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일 공주게 뵈고 전후스를 주시 고하니, 공췌 깃거하며 츠탄 왈, 너 입으로 이르지 아니는 장부 쳐실롤 두미 부모롤 봉양코즈 흐미어늘, 너 비복 부도를 직회여 머뜨러도 민간 녀즈와 갖지 아니들로 디인 쫘을 어즈러여 반다시 편이 아니 너기실빈니, 이 승순흐는 회 아니라. 허몰며 황상과 낭냥이 어이 오래 허햐야 두시리오, 불구의 도라가면 천니 흥되 부녀의게 무단이 쉽지 아닐분 아냐 분분 왕니혀여 존구의 늑흔 지취를 손상흐시게 못흐리니, 스스로 물너가 신히을 바뜨지 못흐미 경경한 일념이 어이 편할 썸 잇스리오. 아

23) 주당이 영평을 거부하는 데에는 광무제가 경시제를 찬탈하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위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는 부친 정원이 왕망에게 청신하였기 때문이다. 정위주의 비복인 장란과 녹랑 등이 주당의 제자로 들어가 주당을 상대로 설전을 벌여 그의 신념이 허상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롭다운 숙녀를 어더 부마의 건귀를 소임하고 구고를 중요로이 시봉하면, 흐나흔 부마로 흐여금 인즈의 도를 다흐미오 흐나흔 니 도라가 턴낭냥 천주를 밧드오미 심신 편흐리니, 이는 흐놀이 놀노 흐여곰 주시미로다. (1권 99~99면)

시집간 여자는 시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에게는 내조를 다하며 가족들 간에는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공주는 시댁과 황실 두 곳에서 의무를 다해야하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보다 더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부도를 다한다할지라도 시댁에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황실에 드나들어야 함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거기다가 자주 입궁하는 것은 시댁에 위화감을 조성하기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에게 있어 정위주는 반가운 존재다. 공주가 입궁했을 때 부마와 시부모를 정위주에게 맡기면, 며느리로서의 본분도 잃지 않고 황실의 소임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댁에서 며느리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남편이 재취(再娶)하더라도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문에서 처처(妻妻)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다. 공주는 정위주를 받아들여 자신의 권한을 나눠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시댁의 평화를 도모한다.

혼인 전 공주는 한 가정에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할 만큼 현명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었다. 이러한 성품은 그녀가 시댁에서 ‘낮설음’을 없애가며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시아버지 주당은 자신이 만든 신념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 신념에 위배되는 낮은 존재인 공주를 배척한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참’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허상일 수 있다. 공주는 자신의 공정함과 유연함으로 주당을 압도하여 그의 잘못된 현실인식과 신념을 바로잡는다. 뿐만 아니라 처처와의 조화를 꾀하면서 가문의 안

정을 도모한다. 황실에서 온 공주가 이 낯선 공간에서 ‘차이’를 극복하며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2) <취미삼선록>의 공주들 : 일탈의 경계에서 방황

① 혼사²⁴⁾

무양공주는 광무제의 장녀이다. 그녀는 얼굴이 절세하고 성품이 출어 범류하여 황제뿐만 아니라, 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공주이다. 건무 15년에 무양장공주가 되었지만 바로 이어 17년에 모후인 광후가 폐위 되면서 “공주 중심의 디통을 품어”(1권) 비운의 공주가 된다. 그러나 광후를 그리워하면서도 새로운 어머니인 음후에게 효성을 다한다. 공주가 혼인할 나이가 되자 광무제가 부마를 간택하는데, 우연히 비독을 잘 두는 양송에게 마음이 혹하여 일방적으로 부마로 결정해 버린다. 음후는 “년소 후성이 참히 흐녘시니, 취쳐하녘실 거시로디 황녀를 사양치 아니호오니 불의라.”(1권)하며 양송을 의심하지만, 광무제는 대사관이 이미 택일하여 국혼이 정해졌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혼인을 진행시킨다. 사실 양송은 이미 허씨와 혼인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황제의 청을 받아들인 상태였다. 이 사실을 알자 태후와 음후 모두 경솔하게 부마를 간택한 한 광무제를 질책하지만, 천정연분이라는 점괘가 나오자 어쩔 수 없이 무양의 혼인을 허락한다. 이렇게 광무제의 일방적인 부마간택은 무양이 소인형 부마를 만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양송은 부친인 양선마저도 “위닌이 표일현격하여 이(利)을 보면 의(義)을 잇고, 식(色)을 보면 형실을 바려, 부귀의 급급한 마음 간악을 거릿기지 아니호니 시닌이 그 쇼명을 들쭈어 진죽 견츄라.....”(1권)라 평할 만큼 간악하고 무

24) <취미삼선록>에서 공주들의 혼인 전 이야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혼사과정은 무양공주만 진행된다.

도한 인물이다. 그리하여 “부마은 숙녀를 득허나 공주는 군즈를 우치 못
 햏야 탕즈의 손의 도라가니”(1권) 무양의 부부생활이 순탄치 않게 된다.

<도맹행>에서 영평은 혼례의 화려함을 거두고 검소하게 나타났을 때
 예야 비로소 시아버지 주당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취미삼선
 록>에서 무양은 혼사 과정을 통해 황실의 화려함과 위엄을 마음껏 내세
 운다.²⁵⁾ 음후는 모후인 광후와 떨어져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무양
 을 더욱 애뜻하게 여겨 혼사를 다른 자녀들보다도 “번화 장녀허미 측
 양”(1권)없게 준비 한다. 무양이 “명주선을 기우리고 폐빅을 밧드라 구고
 께 나오니”(1권) 구고는 공주를 바라보며 “네피 더욱 숙녀허녀 시히 팔황
 의 기진이보로 일신을 장숙허여 천하절보니 비록 초초허고 갈낙허물 승
 상허나 엇지 범상허 국훈의 비글리오”(1권)하면서 그 황홀해 한다. 여기
 서 주목할 바는, <도맹행>에서 주당은 황실에서 온 영평을 배척하지만
 <취미삼선록>에서 시부모는 황실의 위엄을 과시하며 나아오는 무양을
 환대한다는 것이다.

무양과 황실을 동경하고 환대하는 심리는 부마 양송이 혼례 다음 날 삼
 전(三殿)에 문안인사를 하러 입궁했을 때에도 나타난다. 그는 음후를 “찬
 년허 광치 일빅꽃치 향기를 머금어 상셔의 안기를 쓰넛거날 말근 눈을 한

25) 조선후기 왕녀의 자료로 『明溫公主嘉禮瞻錄』이 있는데, 이는 명온공주(1810~1832)
 가 1817년에 공주에 책봉되고 1823년에 진사 김한순(金漢淳)의 아들인 김현근(金賢
 根)(1810~1868)에 시집가는 과정을 기록한 저서이다. 여기에는 명온공주의 가례 이
 전, 가례, 가례 이후의 상황을 자세히 적고 있는데, 특히 궁궐에 공주궁을 설치해서
 황실과 시택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게 하거나, 혼사를 예조에서 주관한다거나,
 친영 행렬할 때 종친, 의정부와 육조 소속의 2품 이상 관리들이 따르도록 하는 등 화려
 하게 혼사를 거행한다. 조선시대의 가례 절차는 남성 우위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데,
 공주의 가례는 오히려 공주가 부마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배우자 선택을 황실
 이 주관하고 황실에서 길일을 택한다는 것부터 그 차이가 있으며 공주를 맞이하여
 부마가로 이동할 때의 행렬을 장대하게 하는 데에서도 황실의 위엄을 보여준다. 김문
 식, 『1823년 명온공주의 가례 절차』, 『조선시대 사학보』56, 2011, 125~156면 참조.

번 들리 가을 물결의 시벽별이 비아난 듯 정해 사람을 동할 뿐 아니라 사람의 선악을 스몯츠 비취시니 온용호고 검공흙과 녕담호고 숙혈호미 천하의 이갓타를 보지 못흔배라.”(1권)라 감탄하고, “만일 금년 녀세 아니면 어이 뵈오리오”(1권)라 하며 음후 만남을 큰 영화로 삼는다. 이렇게 양송은 친영을 하기 전후에 황실에 찾아가 삼전에 문안인사를 함으로써 장인 장모에 대한 예우를 극진히 한다. 그러나 <도앵행>에서는 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주원성도 양송처럼 황제의 부름에 나아가지만 그 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겨 불편해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황제나 황실 사람들은 주원성을 칭송하지만, 주원성은 자신의 감정을 내보이지 않고 냉담하게 대할 뿐이다. 그러나 <취미삼선록>에서는 양송이 음후를 찬양하는 대목은 있지만 황실 사람들이 양송을 찬양하는 대목은 없다. 음후가 부마를 보고 무양의 짝이 아님을 탄식할 뿐이다. 그래서 혼인 후 무양이 입궁할 때마다 부마가 같이 따라오자, 나중에는 아예 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버리기까지 한다.²⁶⁾

이러구러 무양궁을 완필호매 낭부 고허 당원을 널니고 던각을 세우니 누
더 최호여 운간의 넘니호고 천문만호의 화동도란이며 금벽박공이 원근의
보인더라. 부마와 공주 침연을 운향던 문화연을 상이 어필노 제익호샤 금으
로 메워 놓히 들고 출합호는 날 데 친히 동가호여 나와 보시고 삼년이 가디
록 두곳기샤 상궁 수십과 궁녀 수백과 퇴감 궁노 수천여 명을 스급호시고
금주치단으로 각각 고졸 메워주시니 공주 불승송연호야 진정으로 다 스양호
고 오디 소식이 척연호야 즐기디 아니니 상이 그 연고를 무르신디 공주 타루
디왈 황아와 모휘 이갓치 권염호시물 보오니 동히 모후를 심각호읍는 뜻이
비호읍고.....(1권)

26) “부마의 궁녀 뉴숙지 못호게 호시니, 도위 날마다 셔찰을 붓쳐 공주 차즈미 분분호여”(1권)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무양궁이 만들어진다. 황제는 직접 그들의 처소에 '운향전 문화전'이라 제액해 주고, 상궁 수십과 궁녀 수백 명과 태감 궁노 수천 명 등을 사급하여 궁을 지키게 하고, 또 금수 채단으로 장식하게 하여 그 화려함을 더하게 한다. 화려한 건물에 관리하는 인원까지도 수백 명을 동원하게 함으로써 시댁사람들을 압도하여 위축되게 한다. 별궁은 왕비·공주·세자빈 등 혼례식 이전에 원가족이 분리시켜 거주하게 함으로써 왕실가족으로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만든 장소이다.²⁷⁾ <도앵행>에서도 취미궁을 쇠소하여 부부의 처소로 삼지만, 궁의 화려함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²⁸⁾

무양과 양송의 혼사과정에서 주목할 바는, 혼사의 주도권을 황실에서 잡고 있다는 것이다. 양송이 황실의 권력에 힘입어 가문을 회복시키려고 공주와 결혼한데서 볼 수 있듯이, 시댁은 황실에 비해 보잘 것 없는 공간에 불과하다. 게다가 <도앵행>에서는 황실의 부와 명예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비의 가문'이라는 위엄이 있었으나 <취미삼선록>에서는 방탕 무도한 양송이 있는 공간일 뿐이다. 모든 면에서 열등한 시댁에 있어 공주는 그들이 이루지 못한 소망을 충족시켜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경과 환대의 대상이 된다.

② 시댁에서의 생활

무양이 목도한 시댁은 무도하고 패악이 자행되는 '예(禮)'가 없는 공간이다. 양송이 무양과 혼인하기 위해 허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내쫓은 행

27) 장병인, 『조선 중기 이후 국왕의 혼례형태의 변화-별궁의 운영과 별궁친영례의 성립』, 『조선시대사학보』55, 2010, 100면 참조.

28) “태후 또 혼 강박지 아니시고 성님 취미궁을 쇠소하여 공주의 출입하는 별부를 숨으시고, 영평궁역을 지축하시며 공주를 너여 보니시니, 부메 맛당흔 처소의 미르민.....”(1권)

동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구고 숙미 등이 혼가지로 반겨 마자 위로하여 옛 침소의 도라보내니 옥상
나유의 경덕 슈함이 의구히더 뜻글이 즈옥하여 망시 업혔고 것구러진 탁자
와 보아진 괴병이 오히려 어즈러운 자취 이시니 당일의 부마의 무단이 옥며
구박하여 보너던 경식이 완연하니라.(1권)

무양의 노력으로 허씨가 다시 시택으로 돌아와 옛 침소를 바라보는 대목이다. 티끌이 자욱한 가운데 탁자가 거꾸러지고 병이 깨지고 어지러운 자취가 자욱한 침소는 양송이 허씨에게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던 흔적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시택은 양송의 폭력이 난무하는 불의에 찬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된다.

무양은 폭력과 무질서로 점철된 공간을 바로잡기 위해, 우선 허씨가 조강지처의 자리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한다. 무양은 곽후가 광무제에 의해 억울하게 조강지처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광경을 목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허씨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곽후를 위해서라도 허씨를 반듯이 조강지처의 자리로 복원하여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곽후도 무양에게 어찰로 “지성으로 조강을 복합하여 하상의 원을 세치지 말나”(1권)고 당부한다. 곽후와 무양이 이렇게 조강지처 복원에 힘을 쏟는 것은 단순히 허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성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내쫓겨야만 했던 여성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음으로써 남성 중심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무양은 조강지처 복원을 위해 직접 광무제에게 찾아가 간청하기도 하고 부마를 허씨에게 보내어 데려오게 하기도 한다. 결국 공주의 노력 끝에 허씨가 돌아오게 되고, 공주와 허씨가 동렬로 조화롭게 지내면서 가족의 질서가 바로잡힌다.

무양은 조금의 부귀함도 자랑하지 않고 검소하게 지내며 시부모 봉양에 힘쓰지만, 오직 양송만은 “녕정석석하야 스슬의 부박흔 희롱을 물이치니”(1권)다. 무양에게 양송은 자신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괴물’과도 같은 존재다. 그래서 무양은 황실에 자주 드나들며 방탕무도한 양송에게서 벗어나려 한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예 허씨에게 양송과 자녀를 맡기고 한 달의 이십일 이상을 황실에서 머무른다. 시댁은 무양에게 양송과 관련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곳을 벗어나야지만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무양은 양송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황실에서 머문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불안하여 광무제에게 청하여 취미궁을 하사받은 후 양송 등의 부마들을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막는다.²⁹⁾ 이 취미궁에는 곽후 소생의 공주인 무양·관도·여읍만 거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공주들의 남편들이 모두 “성정이 솟는 물꺽고 화려하며 쥬식으로 황음흔를 즐기고 신의 뜻과 대상부동”(1권)하기 때문이다. 결국 ‘취미궁’은 시댁이라는 공간에 적용할 수 없는 공주들의 해방공간으로 작용한다.

세 공주가 오랫동안 취미궁에 있으면서 시댁으로 돌아오지 않자, 부마들은 공주들을 보기 위하여 취미궁으로 향한다. 그러나 문 앞에서 사례태감에게 거절당하자, 양송과 여읍의 남편인 음풍이 격노하여 군졸들을 이끌고 취미궁을 공격한다. 음후 소생의 공주인 날양의 부마 두공이 “이곳 지 이궁이나 대니와 갖고 비록 습공주를 빌려겨시나 어서 현판이 닛셔 부마 등의 녀츄 난법을 금히시고, 하물며 양전 어용을 피셔 디내와 쥬호 다르미 없거늘, 군 등이 닛신이 되야 무단이 군병을 발하여 궁문의 찌치고 들녀하니 삼척 지놀이 지엄하니라”(1권)며 양송과 음풍을 타일러 돌려보낸다. 한편 관도의 부마 한광도 공주들이 “교릉 방자하여 구가를 능멸하

29) “취미궁은 무양, 관도, 여읍의 우유(優游)하는 곳이니 그 이하는 감히 못들이라”(1권)

고 가부를 끈어 취미궁의 숨어 동희를 교통하여 음모비계를 도모한다”(1권)고 상소하려 하다가, 두궁이 중간에서 막는다. 이렇게 두궁으로 인해서 세 부마들의 도발은 일단락된다.

음후는 취미궁의 변고를 듣고 공주들에게 “너희 도리 맛당이 본부의 나가 사죄하염즉흐느, 부마의 괴거를 당흐면 일이 난처흐니, 먼저 서찰노 극진히 사죄하디 즉시 늑아가 석고디죄하여 명을 기다리미”(1권) 옳다고 한다. 이에 무양은 음후의 하교대로 서찰을 써서 시택에 사죄한다. 그러나 여읍만은 서찰 쓰기를 거부하여 시비가 대신 써서 본부에 보낸다. 광무제도 세 공주에게 “삼공주는 황실과 덕이 옥갓거늘, 습부마 무슴일이 부족하여 크로 실난흐느나”(1권)며 본부에 나아가 사죄하라고 명령한다. 이에 무양은 부마에게 나아가 사죄한다. 무양은 시택으로 귀환한 후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부마의 내조에 힘쓰며 허씨와 조화롭게 지낸다. 관도 역시 시택으로 돌아와 부마와 화해한다. 그러나 여읍은 “구고 속미의게는 온공 비약흐나 부마의게는 일양 원거하여 녀담”(1권)한다. 여읍이 자식을 낳지 않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끝까지 남편을 거부하고 냉담했음을 알 수 있다.³⁰⁾

이렇게 공주들의 취미궁 칩거는 부마들의 도발로 인해 중지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여성이 시택을 벗어나 생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택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공주들이 비정상적인 세계에 완전히 순응했다고

30) 여읍의 삶은 장편본 <옥환기봉>에서 더 비극적으로 그려진다. 여읍은 광주의 병문안을 갔다가 그곳에서 금전을 떨어뜨리는데, 이 금전을 음후의 종질인 음풍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강요받는다. 이에 여읍은 혼인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하지만, 음후마저 남녀의 얼굴이 노출되었고 탕자와 같은 음풍이 보물을 도적한 일로 이상한 말을 퍼트리고 다니면 오히려 여읍의 신상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인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성정이 고결하고 강직하여 방탕한 음풍을 용납하지 못하고 거절하다가 음풍에 의해 높은 난간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한다.

만 볼 수는 없다. 공주들은 그 이후에도 취미궁에 놀러가 밤새도록 즐기다가 돌아가곤 한다. 소원대로 종신토록 거처할 수는 없었지만 취미궁에 드나들면서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는 있었던 것이다.³¹⁾ 이렇게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미궁 방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공주들이 시댁을 완전히 자신들의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댁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영원히 그 공간에서 타자로 남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공주들은 체제에 순응하면서도 일탈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그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존과 일탈의 경계에 선 공주들의 타자의식

- 결론을 대신하여

시댁은 혼인으로 형성된 관계 속에서 여성이 주로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다. 시댁에 처음 입성한 여성은 그들의 문화에 속하지 않는 자로 타자에 머무른다.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지 못한 이들은 낮은 세계에 순응하거나 혹은 원래 있던 세계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면서 타자성을 극복한다. 만약 이도저도 아니라면 이들은 낮은 세계에서 추방당하거나 일탈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착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댁에 대한 타자의식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시집가기 전과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한 여성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 시댁의 지배 권력은 이 공간을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31) 세 공주는 이후에도 광무제와 태후, 음후, 광주(광후母), 음후 소생의 공주를 초대하여 취미궁에서 신선처럼 우유(優遊)하며 지낸다.

가 투영된 곳으로 물들인다. 이러한 지배 권력은 동일성의 전략을 통해 타자의 일탈을 저지하고 포섭하지만 실패하게 되면 타자는 주변화되고 소외된다.³²⁾ 그래서 시댁이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방식이 까다로워진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집합의식에 며느리가 제대로 잘 따르는지 장애물 요소를 둔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에야 비로소 기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³³⁾

여성은 시집을 가면 시집에 매인 몸이 되어 공간 이동의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친정 부모의 죽음이라는 큰일을 당하지 않고서는 친정과의 자유로운 왕래도 불가능하다.³⁴⁾ 그러나 공주들에게는 돌아갈 황실이 있다. 더구나 시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있는 본인 소유의 별궁도 있다. 공주들은 시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도 있고 시댁의 부당함에 저항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이들에게는 타자성을 간직할 수 있는 해방공간이 주어진다. 게다가 공주들은 지위와 신분이 시댁보다 상위에 있다. 이렇게 공주들은 시댁에서 타자로 존재하면서도 일반 여성들과 다르게 주체, 즉 시댁을 압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려우면서도 매력적인 대상이다.

공주들이 타자로서 존재함은 두 집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 ‘차이’

32) 전봉철, 『차이의 공간화와 타자의 정치학』, 『타자의 타자성과 그 담론적 전략들』, 부산대학교출판부, 2004, 102면.

33) <쌍천기봉>에서 이몽현은 장옥경과 정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황실의 부마간택에 의해 계양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한다. 계양공주는 본의 아니게 장옥경으로 하여금 첫 번째 수난을 겪게 했던 인물이다. 자신 때문에 장옥경이 퇴혼을 당하고 수난을 겪게 된 것이다. 계양공주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아 자신의 어머니인 태후에게 말해 장옥경의 수난을 해결해 준다. 장시광, 『<쌍천기봉>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1, 2010, 213면 참조.

34) 서영숙, 『딸-친정식구 관계 서사민요의 특성과 의미-어머니의 죽음을 통한 딸의 홀로서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2009, 182면 참조.

에는 성, 계급, 문화가 포함된다. 공주를 타자로 인식하는 시대의 시선은 다음과 같다. 타자의 존재는 사실과 환상, 참과 거짓, 현실과 꿈을 구별하는 잣대를 제공한다.³⁵⁾ 그래서 <도앵행>에서 주당은 ‘참’이라 여기는 자신들의 신념에 위배되는 영평을 ‘거짓’으로 규정하고 배제해야 할 타자로 인식한다. 특정 사회 내의 모든 규칙성을 지닌 신념과 행위(즉, 제도)들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정상적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들에 의해 ‘반복된’ 것들이기에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다.³⁶⁾ 그렇기 때문에 한 집단에서 ‘참’이라고 생각하는 신념도 다른 관점에서는 ‘거짓’일수도 있다. 그래서 주당은 자신의 신념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 공주를 거부하면서 내부를 더욱 결속시킨다. <취미삼선록>에서 남편 양송은 공주를 신분 상승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환대한다. 그러나 환대의 이면에는 무양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부흥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뿐만 아니라 황실의 존엄함과 혼사의 화려함에 대한 열등의식도 자리 잡고 있다. 타자는 우리 내부의 억압된 무언가를 대신 드러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³⁷⁾ 타자에 대한 배척 혹은 환대의 심리 안에 숨어있는 불안 심리와 열등감이 이를 증명한다. 이렇게 타자를 바라보는 시대의 시선에서는 공주에 대해 가지는 이중적 공포감을 알 수 있다.

공주는 상위 계층·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앵행>에서 영평은 시대를 ‘허상뿐인 명분에 사

35) 김지영, 『들뢰즈의 타자 이론』, 『타자의 타자성과 그 담론적 전략들』, 부산대학교출판부, 2004, 123면.

36) 김광기, 앞의 논문, 290면.

37) 유현주, 『괴물, 여성, 기계-프로이트의 언캐니 이론과 우리 안의 타자들』, 『뱀히너와 현대문학』37, 2011, 243면.

로잡힌 곳'으로 인식한다.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결과에만 집착하여 잘못된 논리를 세워 사람을 재단하는 주당으로 인해 시택은 상식이 통하지 않은 곳으로 변한다. <취미삼선록>에서 무양은 시택을 '무도하고 패악이 자행되는 곳'으로 인식한다.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조강지처를 내쫓고 무양을 아내로 받아들인 양송으로 인해 시택은 폭력이 만연하는 예(禮)가 없는 공간이 된다. 영평과 무양이 이러한 시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들의 잘못된 명분과 욕망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데에 있다. 이렇게 영평과 무양은 시택을 자신의 신념과 부합되지 않는 곳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이질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영평은 시집가기 전 일반 가정과 황실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시택이란 공간이 그렇게 낯설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양에게 시택은 낯설고 비정상적인 공간일 뿐이다. 이는 낯선 세계라 하더라도 그 친숙하고 익숙한 정도에 따라서 정신적·문화적 충격이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차이'가 좁혀질수록 타자에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과정은 시택에서 공주들의 생존 방식을 통해 나타난다.

자신들만의 질서를 공고히 하고 있는 시택에 비집고 들어가려면 공주들만의 생존 방식이 필요하다. 공주들이 정착을 위해 시도한 첫 번째 전략은 시택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또 다른 '처(妻)'의 복원을 추진한다. 고집스런 시아버지와 탐욕스런 남편에 의해 출거당한 '처'들을 공주들이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독선과 폭력이 가득한 시택의 무질서를 바로 잡고 남성들에 의해 희생당한 여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비판의식이 내포되면서 당대 남성 중심 사회의 가족 제도를 비판한다.

두 번째 전략은 '처처(妻妻)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다. 공주들이 낯선 시택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성들끼리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주들

은 다른 부인과 역할 분담을 나누며 조화로운 관계를 도모한다. 이는 시택뿐만 아니라 황실을 넘나들 수 있는 공주만의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 번째는 이질성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타자는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온 만큼 설혹 일견 낯선 것이라 할지라도 포용하려는 태도, 즉 이질성에 대한 ‘관대성’을 지니게 된다.³⁸⁾ <도앵행>의 영평은 시택의 질서에 부합하기 위해 부와 지위를 내려놓는다. 그렇다고 지배 권력이 만든 동일성에 완전히 자신을 맞추지도 않는다. 영평은 일반 가문과 황실 등 다양한 공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이 고정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택과 달리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시아버지 주당을 변화시키고, 홀로 수절하는 정위주를 복원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관대함과 포용력으로 낯선 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그 ‘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타자로 남는 공주들이 있다.³⁹⁾ <취미삼선록>의 무양과 관도·여읍은 순응과 일탈의 경계에 선 타자들이다. 두 집단의 차이가 심하면 그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공주들은 황실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황실 밖 세상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게다가 시택은 폭력과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예’가 없는 공간이다. 이러한 곳에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바로잡고 남편을 개과시키려 노력하지만 끝내 실패하고 만다. 더 이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이들은 시택을 벗어나 ‘취미궁’에 들어가 남편의 위협으로부터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다. 이곳은 시택과 자신을 구분하여 자신의 타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주들은 남편들의 도발로 인해 다시 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시택으

38) 김광기, 앞의 논문, 297면 참조.

39) “절대적으로 다른 자, 곧 타자는 모든 것이 박탈된 궁핍한 ‘얼굴’, 고통받는 얼굴의 모습으로 나에게 현현한다”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2000. 143면.

로 복귀했다고 해서 그곳에 완전히 정착했다고는 볼 수 없다. 여음이 끝내 남편을 거부하고 자식을 낳지 않는다거나 시댁에서의 지친 마음을 ‘취미궁’ 방문을 통해 치유하는 데에서 보듯이 공주들은 시댁이라는 공간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채 순응과 일탈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시댁에 주체화되지 못하고 영원한 타자로 남은 것이다.

지금까지 시댁에 대해 느끼는 공주들의 타자의식을 살펴보았다. 공주들이 거쳐하게 된 시댁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배되는 곳이다. 이곳에서 황실의 공주라는 지위와 특권은 정착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소가 된다. 공주는 자신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공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하여 영원한 타자로 남거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며 새로운 질서를 수립했을 때 가문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반면 시댁에서는 공주들을 배척 혹은 환대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주에 대한 위기의식과 열등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공주들뿐만 아니라, 부마들도 황실 입장에서는 타자들이다. 부마들은 황실의 위상에 감복하기도 하지만 황실에 대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마들의 서사도 타자성과 타자의식을 고찰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황실에 대한 부마의 타자의식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 <도앵행> 2권 2책 연세대 소장본
 <취미삼선록> 2권 2책, 한국학중앙연구원본
 <옥환기봉> 30권 15책, 서울대 규장각본
 『주자가례』3 「昏禮」
 범엽, 『後漢書』, 중화서국, 1994.

- 서대석, 「하진양문록」,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2000, 143면.
- 심재숙, 「고전소설에 나타난 공주혼 삽화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 가문소설 연구 논총』3, 경인문화사, 1990, 1-354면.
- 전봉철, 김지영 외, 『타자의 타자성과 그 담론적 전략들』, 부산대학교출판부, 2004, 102쪽-123면.
- 리처드 커니(이지연 역), 『이방인, 신, 괴물』, 2004, 12-44면.
- 구선정, 「〈취미삼선록〉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4, 1-105면.
- _____, 「『종남산 취미궁』의 체험 양상과 그 의미-〈구운몽〉과 〈취미삼선록〉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4·2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7, 209-230면.
- 김광기,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이방인」, 『사회이론』봄·여름, 2008, 281-333면.
- 김대숙, 「결혼 이주 여성의 주체적 삶을 위한 설화 전승의 의의」, 『한국고전연구』 25집, 2012, 38면.
- 김문식, 「1823년 명은공주의 가례 절차」, 『조선시대 사학보』56, 2011, 125-156면.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 학위 논문, 1994, 1-250면.
- _____,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혼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2005, 5-35면.
- 박은정, 「〈옥환기봉〉연작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08, 1-201면.
- _____,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공간의 기능과 의의」, 『한민족어문학』60, 한민족문화회, 2012, 85-124면.
- 서영숙, 「딸-친정식구 관계 서사민요의 특성과 의미-어머니의 죽음을 통한 딸의 홀로서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2009, 182면.
- 소인호, 「〈취미삼선록〉연구」, 『국어국문학』113, 국어국문학회, 1995, 171-194면.
- _____, 「〈취미삼선록〉 이본 연구」, 『우리어문연구』33, 우리어문학회, 2009, 133-159면.
- 유현주, 「괴물, 여성, 기계-프로이트의 언캐니 이론과 우리 안의 타자들」, 『뫼히너와 현대문학』37, 2011, 241-260면.
- 이수희,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한국고전연구』19, 2009, 251-278면.

- 이수봉, 「<도앵행>전 연구」, 『개신어문연구』, 11, 개신어문연구회, 1994, 119-161면.
- 이승복, 「<한조삼성기봉>의 구조와 성격-전편<옥환기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1, 204-225면.
- _____, 「인물 형상을 통해 본 <도앵행>의 의미-<옥환기봉>과 관련하여」,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2002, 373-399면.
- _____,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 『국어국문학회』, 2001, 159-191면.
- 이준구, 「조선 후기 신분지역변동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121~122면.
- 임치균, 「<취미삼선록>연구-<옥환기봉>·<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006, 351-378면.
- 장병인, 「조선 중기 이후 국왕의 혼례형태의 변화-별궁의 운영과 별궁친영례의 성립」, 『조선시대사학보』, 55, 2010, 100면.
- 장시광, 「<쌍천기봉>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2010, 187-232면.
- 최유리, 「고전장편소설의 공주형 인물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0, 1-84면.
- 최윤영, 「문화연구와 이방인」, 『비교문학』, 27집, 한국 비교문학회, 2001, 29-53면.
- 최윤희, 「<도앵행>의 문헌학적 연구」, 『우리어문연구』, 29, 우리어문학회, 2007, 365-399면.
- _____, 「<도앵행>의 갈등 양상과 그 구성 방식」, 『어문논집』, 56, 민족어문학회, 2007, 145-171면.
- 한길연, 「<도앵행>의 재치있는 시비군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349-382면.
- _____,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의 여주인공의 탈속적 자기공간 추구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여성문학회』, 2009, 349-382면.

ABSTRACT

A Consideration on Others Consciousness of Princesses on the Boundary
of Co-existence and Deviation

- focusing on their life at husbands' house revealed in <Doaenghaeng>
and <Chuimisamseonnog>

Koo, Sun-jung

This paper deals with the others consciousness of princesses married to men of ordinary family and their survival strife to be born again from others to members of the family as shown in <Doaenghaeng> and <Chuimisamseonnog>.

The survival pattern of princesses is divided into the life before marriage, the marriage process and the life in husbands' house. In <Doaenghaeng>, the father-in-law Judang thinks of Yeongpyeong as an other who disturbs the group consciousness and the order of his house during the marriage process. To hide this uneasy state of mind, he strengthens the internal tie more and rejects the princess. In <Chuimisamseonnog>, the husband Yangsong thinks of Muyang as the object of aspiration and hospitality to satisfy his desire of status elevation. Meanwhile, in <Doaenghaeng>, Yeongpyeong recognizes her husband's family as "those who are captured by a vain pride of fame". And in <Chuimisamseonnog>, Muyang sees her husband's house as "a wicked and heartless place".

Up to now, the others consciousness of married princess toward husbands' family has been discussed. Husbands' houses where the princesses came to dwell were the places ruled by patriarch ideology. In there, the position and the privileges of royal princesses became a great hindrance in adjusting themselves to and settling into husbands' house. The princesses could not adjust themselves to the spaces that were totally different from their sense of values. Therefore, they either

deviated to remain forever as others or lowered their sight level and changed themselves to be born again as subjects. Meanwhile, the husbands' families looked the princesses as the objects of rejection and hospitality, behind which there were the crisis consciousness and the sense of inferiority. Through the lives of married princesses in <Doaenghaeng> and <Chuimisamseonnog>, we can see the attitude of husbands' family toward the princesses the superior others and their survival ways.

Key Words <Doaenghaeng>, <Chuimisamseonnog>, others, others consciousness, difference, princess, princess' husband, husband's family, royal family, high family, status, position, marriage, co-existence, settlement, deviation

논문투고일 : 2012. 10. 21
심사완료일 : 2012. 11. 23
게재확정일 : 2012. 12. 02